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하 5장 14절] 나이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9월

1일

1일

1,8일 22일

10월

얼음 깨기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면...

교회햇사

하반기 목장모임 시작

어와나 시작

이끄미 1기 교육

진공첫 3기 시작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때때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포기 합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당신 삶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면...
- 나는 가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_\_\_\_\_\_하고 싶습니다.

경배 찬양 시선

내게로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렴 사라질 때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 기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 소신

#### 1. 교사모집

다음 세대들을 맡아서 양육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부서별로 살펴보시고 교사로 섞겨 주십시오.

- 일정: 9월 30일(월)~11월23일(토) / 장소: 전주 동부 교회
-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전북 시니어 선교 학교

전북 시니어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전북 시니어 선교학교입니다.

- 일정: 9월 30일(월) ~ 11월23일(토) / 장소: 전주 동부 교회
-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김병철 선교사]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 미인마

- 1. 부르신 곳에서 오직 예수님 한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 인이 되도록
- 2. '레인보우 랜드'센터를 통해 붙여주신 고이들, 다음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관계, 언어, 재정, 지혜, 성령충만)
- 3. 어린이 도서관 건축, 청소년 캠프 (년 중), 복음 스터디, 교실(한글, 영어, 음악 등 이를 통해 복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 한문장 큰 울림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기쁨으로 달립니다. 왜냐면 예수께서 무한히 어려운 경주를 나를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 팀 켈러 목사 (암 진단 후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제목: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본문: 열왕기하 10장 28 - 36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왕하 10:30)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로운 왕조 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와 암살, 쿠데타, 전쟁을 통해 바뀝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9~10장은 예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를통해 기름부음을 받고 신속하게 아합 가문에 반역합니다. 군대 장관들의 전폭적인지지 아래, 요람과 남 유다의 아하시야 왕(아합의 외손주)을 차례로 죽이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리고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을 몰살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적극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 아합의 잔재 세력을 뿌리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계략을 세워 단호하게 마무리합니다. 예후를 통해 보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지 점검해 보자.

## 1\_온전히 따름(30절)

예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야사르\_올바른) 일을 잘 행하여(토브\_바르게 잘 행하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적어도 아합에 관한 명령 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이스라엘 왕위를 4대에 걸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후 왕조(예후-여호아하스-요아스-여로보암2세-스가랴, 북이스라엘 209년의 역사 동안 약 90년을 통치함)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품고 바알 숭배를 근절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동기가 뚜렷했습니다. 옛 정권의 폐해를 최대한 드러내고이를 척결하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아합 가문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아합 집에 행한 것을 칭찬하신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예후가 너무 가혹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후가 아합의 가문에 행한 일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그 거주민을 진멸하였듯이 아합 집과 그 우상을 제거하는 진멸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눔] 1.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나요? 반대로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과 가장 안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눔] 2.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 님의 전쟁을 치러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 3\_전심이 아니면(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겉으로 보기에 올바르게 행하더라도 예후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콜 뢰바브 완전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란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단과 벧엘에 만든 금송아지들을 섬긴 것이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불신앙과 잘못된 예배를 통해 백성의 영적, 도덕적 삶에 악영향을 끼친 죄를 말합니다.) 결국 이런 평기는 여호와를 위한 예후의 열심 속에 자신의 왕권과 왕조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욕망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알은 이세벨에 의해 후대에 들어온 우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 개혁으로 얻는 이익이 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잘못된 여호와 종교는 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렀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이 자신의 이익을 위협한다고판단되는 시점부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왕권은 보장받았으나 통치 시절 내내 이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영토가 아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요단 동편의 거의 모든 땅이 아람에게로 빼앗긴 것입니다. 이때 잃어버린 요단 동편의 땅은 이후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요단 서편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침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예후의 개혁은 칼과 책략에 의한 정치적 개혁에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개혁은 의미가 없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 나누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버리십니다. 절반의 순종이 절반의 축복만 가져왔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전심으로 충성된 마음이 아니면 온전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나눔] 1. 나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과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눔] 2.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지나칠 정도로 순종해본 적이 있나 요? 있다면 어디까지 해보았나요?

나눔	[하나님의 평가 기준 / 열왕기하 10:28 ~ 36]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삶에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기장 먼저 하나님에게만 묻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심의 약속대로, 함께하여 주소서.